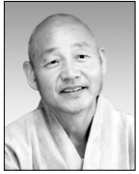


일주 문



웃염색 전사회개최
통도사 서운암 회주 성파 스님 9월 9-14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9월 22-27일 대구 호반갤러리에서 웃 염색 전시회를 개최한다.



통일부 오찬서 협의회 구성 등 논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회장 법해 스님은 31일 홍양호 통일부차관 초청 오찬에 참석 종교지도자 상생공영 포럼 개최, 통일부단체협의회의 구성 등을 논의했다.



8각10층사리탑 원불 정안식 봉행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8각10층 사리탑내 봉안할 원불 1만3,617위 정안식을 9·11·12일 오후 3시에 봉행한다.



‘...수도원의 고행’ 출판기념 사진회
팔공산 갖바위 선봉사 주지 향적 스님은 8월 29일 대구 교보문고에서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출판기념 사진회를 가졌다.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간화선 수행론 연구-화두 참구의 원리와 방법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과학기술원 특별강연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은 9월 8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특별교양강좌에서 ‘한국 정신문화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연했다.



노인종합복지관 경검고시반 모집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은 9월 18일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검고시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031)919-8677



마르퀴즈 후즈후 2010년판 등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에너지복합연구원 김민수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2010년 판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인사

▲금강대학교(교장 성낙승): 불교문화연구소장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 부소장 박창환, 교무팀장 박찬기, 경영지원팀장 겸 시설관리팀장 박혁하 임명.

▲BBS 불교방송(사장 최명준): 보도국 사회문화팀장 전경윤, 보도국 보도제작팀장 강동훈 임명.

“모교 위해 동문 역량 모을 터” “심부름 하는 시지라 생각”

東大 총동창회장에 이연택사... 지관 스님 방문 “학교발전에 진력” 다짐

조계종 6교구 신임 주지 원혜 스님

동국대 새 총동창회장에 이연택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이 추대됐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8월 28일 임시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이연택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제25대 총동창회장으로 추대·선출했다.



9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이연택 동국대 총동창회장.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9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 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총동창회장)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동국대 총장을 역임했던 총무원장스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택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청와대 행정수석, 총무처장관,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하고, 대한체육인복지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02한일월드컵조직위 공동위원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정부와 체육 행정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심부름 하는 시지라 생각하고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산중·대중공의 제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8월 24일 마곡사 산중총회에서 신임 주지로 당선된 원혜 스님(사진)은 9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열린 주지 임명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중화합책을 최우선 과제로, 생태연구 지원과 염불·법배 교육원, 선원 불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혜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서 주지 선거 등을 둘러싼 마곡사 문제에 대해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본사 시지로서 본말사 대중 스님과 불자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 사중화합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염불과 참선 수행이 자랑이었던 마곡사 전통을 되살리고 불자들이 참선과 명상을 통해 설 수 있는 사찰로 가꿔나갈 것”이라며 “우선 수행도량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선원불사와 염불강원, 법배교육을 강화하고, 불자들을 위해서는 단기출가 명상학교와 생태연구를 위해 마곡사 전답을 개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임명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마곡사는 크지 않은 절이지만 인물이 많이 난 곳”이라며 “마곡사 산중 스님들과 대중 개개인 회생해 하나된 마곡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선 임명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마곡사는 크지 않은 절이지만 인물이 많이 난 곳”이라며 “마곡사 산중 스님들과 대중 개개인 회생해 하나된 마곡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故 김前 대통령 차남, 지관 스님 예방

31일, 보좌진 함께 불교계 감사 전



오른쪽부터 김홍업 의원, 지관 스님, 한광욱 예비시정장.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국회의원은 8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은 김 전 대통령 국장 기간 동안...

지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인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큰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 빈 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메워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고인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큰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 빈 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메워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 지관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인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큰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 빈 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메워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

템플스테이 체험

삼성전자 로지텍 임원들

삼성전자 로지텍(주)의 임원 52명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 이들은 8월 28일부터 1박2일 동안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산사의 건강비전 체험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고인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큰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 빈 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메워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 지관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인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큰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 빈 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메워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

불교교리경시대회 준비는 어떻게?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출제 심사위원장 발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9월 12일 예정인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요강 및 출제심사위원장을 발표했다. 경시대회는 총 50문항으로 객관식 5지 선다형 40문항, 주관식 10문항으로 출제된다. 세부요강 열람 및 원서접수는 파라미터청소년협회 홈페이지(http://gyori.paramita.or.kr)를 통해 가능하다. 수험번호, 응시장소, 고사장 안내 등은 9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심사는 개인심, 단체심, 특별심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불교인행활동의 모범자로 자원봉사, 문화재지킴이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나서고 있는 학생에게 수여되는 특별심은 학교, 사찰,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지원서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고인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큰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 빈 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메워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 지관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인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큰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 빈 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메워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빙의·퇴마·최면 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수련기간 : 2박 3일 ■수련인원 : 1~3명 ■수련비 : 150만원 ■개강일 : 2009년 9월 14일 (월) 오후 1시

스님이 직접 강의 하고 스님들만 교육 받는 유일한 곳

많은 스님들께서 최면 교육에 비싼 비용과 무리한 시간을 내어 최면을 수련 하신다는 이야기들 듣고 같은 스님들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딱! 일년만 저렴한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스님들이 최면을 완벽하게 시술 할 수 있도록 최면 강좌를 열었다고 그것이 소승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벌써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150여분의 스님들이 미흡한 제 강좌를 들으시고 최면을 시술 하시어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에는 스님들께 무한한 고

마음을 느낍니다. 정락 스님이 강의를 너무 쉽고 편하게 가르쳐주신 덕분이라는 그말엔 송구스러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승은 오히려 150여 스님들께 감사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말을 제 가슴에 새길뿐입니다. 이제 약속의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특별 개인 지도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세미나와 수련회에만 열중하여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님들께 고난이도 테크닉 전수와 각 회원님들이 삼생의 시공을 넘나드는 자기 최면 완성을 돕는데 진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대상 최면 교육의 명가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 정말 2박 3일에 최면을 시술할 수 있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답)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소승에게 그동안 150여 스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매우 시간을 낼 수 없고, 신분 노출을 꺼리시는 30여 스님들께서 개인적으로 2박 3일 수련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있게 최면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만에 완벽하게 시술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저의 교육 노하우라 할까요? 비법이라 할까요? 같은말 인가요? 하-하-하

질문 2) 2박 3일 교육이 끝난면 끝입니까? 제가 등에서 한번 교육에 최면 시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 걱정 하지 마십시오. 2박 3일 교육을 받으시면 시술을 하지 못할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 한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승에게서 공부하신 스님이 현실에서 최면을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제 성질이 그런것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승이 책임져 드립니다.

일대일씩 개인 지도

질문 3) 이론 공부부 부족하지 않은가요? 답)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최면 강좌를 시작하기 전 많이 고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학문과 기능? 학문과 기능이라? 그리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기능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학문의 심오한 부분까지 공부하더라도 수년의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스님들께서 불사와 포교를 하시는데 몇 년의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 했었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깊은 학문이 필요 없듯이 최

면 시술을 하는데도 깊은 학문적 이해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기능면에 치중 하였습니다. 학문적 욕구가 절실한 스님들이 계시면 서점에 가면 최면에 관한 서적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면 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최면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자료가 있어 기능이 완벽하면 학문에 대한 갈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승은 최면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 완벽한 최면 테크닉에 중점을 두고 강좌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마 최면 연구소

연락 전화 032)349-0666

수련원 : 경기, 안성시 금강면 한운리 산 171번지 홈페이지 http://www.yuma119.com

세미나 및 수련회 안내

•일시 :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 : 유마최면연구소 수련원 (백련사)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금강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주제 : 1. 최면 시술상 고난이도 테크닉 2. 시공(時空) 이동 자기 최면의 완성 3. 물고 답하기 ※ 자격 :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
준비 관제로 9월 15일 까지 참가 신청한 회원님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A) 유마 홈페이지 / 참여 마당 / 자유 게시판에 기수와 방법을 올려 주십시오.
B) 핸드폰 문자 ☎ 010-5100-6612로 기수와 방법을 올려 주세요.
C)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비 : 8만원
•기타 : 모두 참석 하시어 최면 시술중 금강중과 상담함을 해소 하시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